

사회

나주시청 ‘물품구매 비리’ 압수수색

경찰, 27개과·음·면서 컴퓨터·서류 확보 타 시·군으로 확대 될까 지역 관가 촉각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사무용품 구입과정에서 예산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의 이번 수사는 나주시 전체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등 공직사회에 일반화된 부조리라는 점에서 타 시군으로의 확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일 오전 10시께 경찰관 10명을 나주시청으로 보내 시청 산하 27개과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0대와 물품구매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5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수색과정에서 각과의 구매담당자들의 컴퓨터는 물론, 물품거래 내역 등 사과박스 5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나주시 남평을 직원이 사무용품 구입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나주시 공무원들이 실제 구입액보다 많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 조사를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경찰에 고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나주시청 안팎에선 경찰의 이번 수사가 전반적인 공직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1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나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물품구매 관련 자료 등을 차량에 옮겨놓고 있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직원들이 나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물품구매 관련 자료 등을 차량에 옮겨놓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를 꾸며 7억원대의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공무원 100여명이 적발돼 무려 4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나주시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며 “사무용품 등의 물품구매가 각 과별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전체 실·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반았을 뿐 아직까지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구속된 피의자 석방시켜 주겠다” 돈 뜯은 기초의원

제조업체 간부는 구속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현직 기초의원과 제조업체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1일 석방을 위한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피의자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 모 제조업체 이사 주모(4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주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광주 북구의회 이모(37)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및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 등은 지난 1월 29일 남편이 공갈미수로 구속된 박모

(여·38)씨에게 “담당 관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석방시켜 주겠다”고 속여 5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 등은 또 박씨의 남편이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우리가 일을 봐서 풀려났다. 관사와 검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한다”며 추가로 1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박씨로부터 돈을 뜯어낸 후 담당 검사와 관사를 접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또 박씨의 제보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박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구 실종자 차량 월출산서 발견

천황사 주차장에 방치 ... 탐방로 일대 수색

대구에서 거주하던 50대 실종자의 차량이 실종신고된 지 18일 만에 영암 월출산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5분께 영암군 월출산 천황사 입구 주차장에서 박모(55·대구시 수성구)씨의 SM5 승용차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월출산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이 차량이 지난달 15일 실종신고된 박씨의 차량임을 확인하고 수색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주차장에 장기간 방

치된 차량이 있다”는 월출산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실종인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2일 탐방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경찰 확인 당시 박씨의 차량은 열쇠가 꽂힌 채 차문이 열려 있었다. 또 차량 내부에는 “행복하게 잘 살자, 파이팅”이란 내용의 박씨가 아들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가 발견됐다.

박씨의 가족은 경찰에서 “최근 사업 실패로 카드빚이 늘어나 고민을 했다”고 진술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규기자 isah@

골프장 인허가 로비활동

김제스파힐스 대표 영장

전주지검 특수부는 1일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을 위해 로비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대표 정모(5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기 전인 2008년 “골프장 인근 김제 자영고 공동실습실 부지를 골프장에 편입시켜 해달라”며 전주대 교수 최모(50·구속)씨를 통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도교 중)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판인회(61) 전 김제시장을 구속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치료비 안 주고 3년간 버티다...

○3년 전 말다툼 끝에 주먹질을 해 지인에게 상처를 입힌 중년 남성이 치료비를 주지 않고 버티다 3년 만에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47·곡성군 옥곡면)씨는 지난 2007년 9월 15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J주 차장에서 술에 취해 사회 선배인 박모(50·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양자가 혼들리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씨에게 “이가 빠졌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씨는 “3년이나 지나 신고할 줄 몰랐다. 치료비를 줄 걸 그랬다”며 뒤늦게 후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야외활동 쯤쯤가무시증 주의보

광주·전남 환자 23명 일할 땀 긴 옷 입어야

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쯤쯤가무시증 환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쯤쯤가무시증으로 병원을 찾은 광주·전남 지역 환자는 총 15명으로, 추수철 논밭에서 일하다 감염된 환자가 10명, 성묘와 등산 등을 갔다가 감염된 환자가 5명

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도 올 가을 쯤쯤가무시증으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환자가 8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 동구 보건소에는 올해 들어 25건의 쯤쯤가무시증이 신고됐으며 11월 말까지 하루 1~2건의 신고가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가을철에 호발하는 감염성

열성 질환인 쯤쯤가무시증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병으로 국내에서는 추석을 전후 발생하고 있다.

쯤쯤가무시증에 걸리면 발열과 오한, 두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징적으로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관찰될 수 있으며 몸통에 파발진이 보일 수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조선대 감염내과 윤나라 교수는 “쯤쯤가무시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유행시기에 관목숲을 가는 것을 피하고 밭에서 일을 할 때에는 되도록 긴 옷을 입어야 한다”며 “야외활동 후 벌레에 물린 상처가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적절히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검사 헛걸음 ... 시민들 혼란

업체 대부분 새 장비 도입 미뤄 검사 못해

이달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장비가 새로 바뀌었지만 도입을 미룬 자동차 검사업체가 많아 시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환경부는 지난 2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1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업체들에게 이전의 자동차 검사장비인 ‘러다운 쓰리모드’(LUG-DOWN 3Mode)에서 새 검사장비인

‘케이디147’(KD 147)로 장비를 바꿔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본보 10월 29일 7면)

그러나 현재 광주지역 58개 민간 자동차 종합검사업체의 검사율이 72%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19개 업체만 새 장비가 설치돼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광주 북구의 한 정비소

에는 30여명이 종합·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찾았지만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이 정비소를 찾은 최모(43·자영업)씨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기 위해 평소처럼 이곳을 찾았지만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업소 측 말에 황당했다”며 “아무런 공지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어떡하란 말이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구의 한 정비소에서도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았던 15명의 시민

이 “환경부와 전산이 안돼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정비소의 말만 듣고 헛걸음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종합검사업체들은 새 장비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분간 이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새 장비인 ‘케이디147’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6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데다 새 장비는 대형 차량을 검사할 수 없어 구 장비와 병행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구의 한 검사업체 대표 정모(54)씨는 “현재 운용중인 구 장비도 검사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새 장비 전면도입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